

영암군, 복합기능 갖춘 ‘영암형 도시개발’ 첫삽

교통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
문화예술·교육·지역활력 기대

문화예술과 교육, 지역활력이 어우러진 ‘영암형 도시개발’ 사업이 첫 삽을 떴다.

27일 영암군에 따르면 전남 영암읍 교동리에서 우승희 군수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 교통지구 도시개발 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영암 교통지구 도시개발’은 영암살내 체육관 맞은편 영암읍 교동리 18만 9602㎡ 부지에 주거·교육·문화·상업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구호로 출범한 민선 8기 영암군 혁신 도시개발 집약체로 평가받고 있다.

교통지구 도시개발은 영암문화예술회관과 영암공공도서관 건립,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 191억원을 투입해 교통지구에 들어설 영암공공도서관은 월출산국립공원을 무대로 국내 유일의 기후·생태·환경 교육 거점도서관으로 건립된다. 영암군은 책과 사람, 자연과 생태가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가꿔가는 복합문화교육



26일 영암읍 교동리에서 우승희 군수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 교통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영암군 제공

공간으로 도서관을 꾸밀 계획이다.

이 곳에는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영암주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할 영암문화예술회관도 454억원을 들여 건립된다. 영암문화예술회관은 800석 규모 대공연장, 140석 규모 소극장을 갖춘 문화예술회관 기능을 하게 된다.

주민자치와 지역순환경제로 교통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내일을 주민 손으로 열어가길 산실로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여기에 주거단지와 함께 커뮤니티센터,

소공원 등이 조성돼 주민공동체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사용된다.

영암군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해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은 교통지구 도시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농촌이 직면한 저출산, 청년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취약한 정주여건과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는 ‘영암형 도시모델’을 세운다는 전략이다.

교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6년 6월 준공해 7월 토지 분양에 들어가며, 영암공공도서관은 2026년 12월, 문화예술회관은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교통지구 도시개발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가꿔갈 도시를 건설하는 민선 8기 혁신 영암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문제에 해법을 제시하는 ‘영암형 도시 모델’을 교통지구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이병영 기자

해남군, 보훈가족 유족수당 인상
내년부터 월 5만원→8만원

해남군은 내년부터 보훈가족 유족수당을 3만원 인상해 월 8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본인수당과 동등한 금액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동등하게 예우하기 위해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유족 최초 1회 승계 조항도 폐지해 유족수당의 범위도 확대했다.

해남군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본인은 8만원, 유족의 경우 65세 이상 중 최초 1회 승계에 한해 월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보훈수당 확대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신안군 ‘100만원 이상 기부’
나눔리더 33명 단체 가입

신안군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청 1004회의실에서 새롭게 가입한 나눔리더 33명과 함께 두 번째 나눔리더 단체 가입식을 가졌다.

‘나눔리더’는 공동모금회 나눔리더 기부 프로그램으로, 100만원 이상 기부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나눔리더 가입식은 신안 나눔리더 1호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나눔리더 23명의 단체 가입식에 이어 한 달 만이다.

33명이 신안지역 공동체 만들기에 동참하면서 신안군은 전남에서 가장 많은 나눔리더 56인을 배출한 나눔의 섬으로 거듭났다.

이번 단체 가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로 신안군 주민들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와 5개 지역 협동조합 13명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해양기후 치유센터 유료 전환
완도군, 1월말까지 50% 할인

완도군 해양기후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지난 11월25일 개관에 맞춰 유료운영으로 전환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 기념 이벤트와 함께 해양기후·해양문화치유센터도 내년 1월31일까지 50% 할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양기후치유센터에서는 신지 명사십리 해양기후를 활용해 노르딕워킹과 필라테스,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뜻의 싱잉 볼 명상, 차(茶) 명상, 해변 엑서사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은 2018년도부터 368회, 2만4715명 참여했고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2022~2023년 137회 운영, 5270명이 참여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전남도, 특별안전관리 총력
해맞이 명소 등 인파밀집 지역

전남도는 도내 해남·해맞이 명소 등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1일까지 관내 해남·해맞이 관련 명소 14개 시군 53개소 중 대규모 밀집 예상 5개소에 표본 확인점검을 진행하며 그 외 행사는 시군에서 자체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점검사항은 △적정 수용인원 검토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구급차 통로 확보 △축제장(산·해변가) 데크, 난간 등 낙상 사고 방지 안전 조치 및 시설물 점검 △좁은 해안도로 등 안전 취약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과 교통관리 등이다.

오미경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시군,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전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해해 당일 현장 확인 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완도군 해양기후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가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해변 엑서사이즈 등 시범 운영을 마쳤으며 내년 1월말까지 50% 할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완도군 제공

해남군, 올 각 분야별 기관표창 역대 최다 90건 수상

2017년 비해 2.5배 ↑

해남군은 2023년 한 해 동안 각 분야별 종합평가에서 기관표창 90건을 수상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해남군의 기관평가 수상은 매년 증가해 민선7기 직전인 2017년 36건에 비해 2.5배 이상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도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 집행평가 최우수상을 비롯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산업경제대상,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 분석진단평가 최우수,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기초지자체 대상,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환경부장관상, 자활사업 전국 우수지자체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상,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상 등 군정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평가에서 전남 유일



하게 5년 연속 최우수(SA)등급을 획득했다.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5년연속 2등급을 달성하며, 공평·공정·공개로 군정 운영이 돋보였다.

민선8기 ESG 경영행정의 성과도 두각을 나타냈다.

사단법인 한국ESG학회가 주최하고 국회ESG포럼이 주관해 올해 처음 열린 한국 ESG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대상을 수상하며 해남형 ESG 확산의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대한민국 ESG 착한경영 종합대상, 공기의 날 굿에어시티 대상 등을 연달아 수상했다.

전남도 농정업무 2년연속 대상을 비롯해 농식품 업무평가 대상,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최우수상, 식량·원예업무 평가 최우수상, 친환경농업대상 최우수상,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 가족방역시책 종합평가 최우수상 등 1등 농업군 성적표를 받았다.

제14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에 선정됐고 전남도 대표축제 선정, 제11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등을 관광분야에서 수상했다. 팽글순례문화관이 한국문화관광협회가 선정하는 최우수 문화관에 선정되고 군립도서관이 전남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1위를 차지했다.

전남도 산림행정 우수상, 정신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대한민국 지방지킴 경제활성화분야 대상과 상반기 지방불가 안정관리평가 최우수기관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장려상 등 성과를 올렸다.

해남=전연수 기자

국정원 보안평가 첫 전국 1위
전남도, 17개 광역단체와 경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안 기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사상 최초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정보보안 부문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정보보안 실태평가에서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정보보안 실태평가는 국가정보원이 행정기관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능력 확인을 위해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위기대응 역량 등 3개 분야 119개 항목에 대한 만족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항목 중 최상 난이도의 정보보호 역량 전반에 대한 평가로, 전남도 최초 3개 분야 정부합동평가 기준을 통과하는 성과도 이뤄졌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국정원과 지역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소통하면서 전국 최고점을 올릴 수 있었다”며 “정보보안에 빈틈없도록 보안 능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